

안녕하세요?

먼저 유나이티드 헤스케이가 이사
사무실을 open 하여 주시고 저상으로
가사 드립니다.

그리고 아동간호 사무실로 너무나도 친절하고 자상하신
마니저님. 여자 선생님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위하여 어렵고 하는일이 있어서 찾아갈 때마다
설명해주시고 알고 항상 반갑게 맞아 주시고 너무
친절하기 청해 주시고 일을 해주시면서 주시대마다
더욱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낍니다.

내가 유나이티드 헤스케이에 올라갈 것을 참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을 한테도 정말 친절하고
비嫩하고 좋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결국 유나이티드 헤스케이의 친구처럼
실용성을 찾고 경험을 일을 만드는 경험해 주시기
같은 사람들이 더욱 더 유나이티드 헤스케이를
사랑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을때마다 여러번 찾아가서 물고 또 물어보기도
면접 때 한정같은 아동간호 친절하기 대해 주시는
마니저님. 여자 선생님. 너무 너무 감사 드립니다.